노사상생으로 위기 넘자

중 노사불안에 흔들리는 지역경제

"임금·복지 최고인데… 왜 파업인가"

광(光)·자동차·가전은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광주의 전략산업이다. 지난 10여년간 이들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생소했던 광산업은 광주의 상징이 됐다. 가전은 삼성·대우·캐리어 등 3사가 광주에 둥지를 틀어 '백색가전의 메카'가 됐다. 자동차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이끌었다. 이들 전략산업 덕분에 광주는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기아차·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조마조마

주변상가·유통업체도 매출 하락 불안

그러나 최근 광산업과 가전 산업이 예전같지 않다.

광산업은 단순조립 위주 업체로 편중돼 경쟁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전은 글로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공장이 해외로 밀려나고 있다.

다만, 기아차 광주공장을 필두로 한 자동차산업의 선전이 광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주력 차종인 쏘울·스포티지R의 글로벌 인기가 광주공장을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질주는 협력업체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호원·대유에이텍 등 지역 협력업체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업계도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예고돼 지역경제에 험난한 여름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기아차는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13일과 20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임금·복지보다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주도하는 '정치 파업'의 동참이라는 데 비난이 일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본격적인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게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금속노조의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도대체 왜 우리의 임금협상이 금속노조가 정해놓은 파업 일정에 따르기 위해 결렬이 선언되고 파국의 길로 가야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도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개별기업을 넘어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9년 파업으로 매출 손실만 37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 협력업체들도 8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또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는다. 직원들의 씀씀이가 줄어 주변 상가 매출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불황에 고전하고 있는 유통업계는 더 불안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파업하면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매출은 5~10%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공장의 기틀인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차질이 걱정이다. 기아차는 현재 광주 2공장 증축, 1·3공장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 파업이 현실화되면 프로젝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증산 일정이 늦어지면 이에 맞춰 투자·인력 충원 등을 진행한 협력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기아차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또 파업이라니 솔직히 불안하다"며 "기아차는 돈도 많이 받고 복지도 최고 수준인데 뭐가 부족해 파업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성실교섭으로 지역경제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운태시장 금호타이어 노사 대화 촉구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 "시민들은 지역 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가 노사갈등으로 노조가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매출 1조900억원, 종사자 2900명에 이르고, 협력업체 230여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호남의 대표기업"이라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정상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권 펌프카 파업 일주일…콘크리트 잔여물 처리 책임 마찰

혁신도시·야구장 등 공사 차질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첨단2지구 등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주요 건설현장이 멈춰섰다. 광주지역 펌프카 업주들이 1주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레미콘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8일 광주전남펌프카협의회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광주 펌프카업계가 콘크리트 잔여물 처리 책임 문제를 놓고 레미콘업계·건설사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달 27일 부분파업에 이어 2일부터 펌프카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광주권에는 펌프카 180대가 운행 중이다.

펌프카업계 파업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광주 첨단2지구 아파트 현장 등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주요 건설 현장이 멈춰섰다.

공사 중단으로 레미콘 등 건설현장 피해는 물론 혁신도시·야구장 건립 등 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은 레미콘업계에 콘크리트 타설 뒤 펌프카 내 잔여물 제거를 위한 '물차'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신종팔 광주전남펌프카협의회 회장은 "콘크리트 타설 뒤 레미콘 차량과 연결된 펌프카 내에 있는 콘크리트 잔여물 처리 책임 문제를 놓고 레미콘업계와 이견이 있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레미콘업계가 일방적으로 물차 공급을 거부해 파업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특히 장마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사의 몫"이라며 "그동안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업계에 물차 공급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2월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거부하며 물차 무상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만간 광주권역 레미콘업체 대표자 명의로 펌프카 업계에 조업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물차 공급은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형마트 휴일 영업재개 군포·속초 등 전국 확산

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군포와 속초 등 지방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이번 주말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됐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위법성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규제를 유지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비보잉 퍼포먼스 공연 지난 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액세서리 브랜드인 '캉골'이 비보잉 퍼포먼스 공연을 열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로또복권 (제50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4	10	17	31	42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025,200,094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3,062,297	61
3	5개 숫자 일치	1,230,507	1,63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235
5	3개 숫자 일치	5,000	1,272,541

골든듀, '모닝듀' 출시 10주년 할인행사

보석브랜드 골든듀가 대표제품인 '모닝듀' 출시 10주년을 맞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모닝듀'는 지난 2002년 출시된 후 7만개 이상 판매한 제품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5가지 디자인으로 리뉴얼 출시됐다.

오는 29일까지 골든듀는 '모닝듀 클래식'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 '모닝듀 클래식' 제품을 이미 구매했거나 소장한 고객에게는 새롭게 출시된 '모닝듀 플라멩고' '로망스' '뉴웨이브'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오는 15일 골든듀에서 인기가 많은 디자인 10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골든듀 전국 65개 백화점 매장에서 열린다. 문의 02-3415-5715.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 사업체·종사자 수 전국 3% 불과

전남지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국의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2개 시군 중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가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수는 12만5000개로 전국 335만5000개의 3.7%에 그쳤다. 전남지역 종사자 수도 57만여명으로 전국 176만4700명의 3.2%에 불과했다.

도내 산업별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이 3만6000개(28.3%)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만6000개(20.8%), 협회·단체·수리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1만7000개(13.5%), 제조업 1만개(7.9%) 순으로 제조업체 수가 가장 적었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제조업 9만3000명(16.4%), 도·소매업 8만1000명(14.3%), 숙박·음식점업 6만1000명(10.7%)이다.

산업별 연간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 61.5%(105조3천230억원), 도·소매업 9.9%(17조500억원), 금융·보험업 8%(13조7천720억원), 기타 업종 20.6%(35조2천290억원) 순이다.

시군별 사업체 수는 여수시가 2만개(16.1%)로 가장 많았고 목포·순천·광양시 순이다. /오광록기자 kroh@